



## Day23; 20221006

📅 날짜	
📅 유형	
🏷 태그	

GitHub - u8yes/R

You can't perform that action at this time. You signed in with another tab or window. You signed out in another tab or window. Reload to refresh your session. Reload to refresh your session.

<https://github.com/u8yes/R>

u8yes/R



👤 1 Contributor   0 Issues   ☆ 1 Star   🍴 0 Forks



instance - 객체(new ...)

제너릭은 정해진 참조자료형이던 기본 자료형이던 그것만 담을 수 있게 리스트를 뽑아주게 도와준다. <VO/VTO/Bean>으로 담아줘서 처리할 수 있다.

```
List<제너릭스> list = new ArrayList<>();
```

Set - 중복되지 않고, 순서 고려 안 함. 데이터가 있는지 검색부터 해야되서 성능이 떨어짐.

---

해시 알고리즘의 예는 1,2,3,4,5,6,7,8,9,10 숫자에서 % 나머지 연산자로 각자의 나머지 번의 방에 넣는다.

---

메서드() VS 함수()의 차이는 무엇인가? <단골 **기술 면접** 질문>

**함수(Function)**와 **메소드(Method)**라는 단어를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기 위해 두 단어 간의 차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 한다.

우선 함수는 여러 문장들이 하나의 기능을 구현하도록 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함수 중에서 클래스 내부에 정의한 함수를 메소드라고 부르는 것이다. 또한 메소드는 객체의 속성을 다루기 위한 행위를 정의한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즉,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함수이나, 클래스 내부에 종속되어 있느냐의 구분으로 함수와 메소드를 구분할 수 있다.

#### 함수(Function)와 메소드(Method)의 차이

함수(Function)와 메소드(Method)라는 단어를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기 위해 두 단어 간의 차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 한다. 우선 함수는 여러 문장들이 하나의 기능을 구현하도록 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

☹ <https://jonsyou.tistory.com/69>



공통점은 기능 구현.

메서드는 특정 대상에 대한 이 대상만 가지는 특정 기능이다. (객체 지향) 이 특징을 참조자료형으로 관리하겠다.(특정 대상 - 속성, 기능)

예) 에어컨에만 정의하는 기능.

함수는 특정 대상이 아니다,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정의한 기능이다.

자바는 범용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겁니까?

문법적으로는 함수라는 개념이 없다, 자바에서는 함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함수로 정의할 수 없는 건 맞다.

범용적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 사용, 메서드를 **static**으로 사용해 우회적으로 구현 가능하게끔 사용할 수 있다.

질문을 잘 대답하면 바로 포트폴리오 질문으로 들어간다.

---

-인성 면접

엘리베이터가 정지됐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속 뜻을 알아야 한다, 방향성을 보고 인성을 평가, 가치관을 평가한다.)

- 잘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별함. (사원)
  - 돌발 상황을 탈출하려는 사람이라면. (임원)
- 

임원을 뽑을 때 인성 면접을 할 때 '취미가 뭐니까?' 라고 묻는다는 건 대인관계를 묻는 것이다. (활동적인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지)

개발자를 뽑을 때 인성 면접을 하면 좀 더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를 봄. (너무 활발해도 문제)

적당히 활발하면 마케팅, 기술 영업 쪽에서도 개발자를 원하기 때문에 좋게 볼 수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조직도를 먼저 봐야함.

---

갑 - 을 관계에서 개발자를 뽑을 때 스스로 '을'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실력만 갖춰있다면 상관없다.

## 자신감(꼭 실력을 말해야만 하는 것이 아님, 실력이 느는 느낌만 가지면 된다.)

---

중견 기업은 오래있을 필요없다. 2~3년 차에 이직을 하면 월급, 직급도 배가 되면서 보상 가능. 한 회사에 오래 있는 것을 장점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봄.

이게 IT 생태계다.

---

통계 - 평균 하나의 값 = 대푯값

평균으로 우열을 판단 가능.

중앙값 -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딱 중간에 오는 것을

---

확률의 시작은 빈도수이다.

```
5
6 # A 컬럼 요약통계량, 빈도수 구하기.
7 summary(test) # 요약통계량.
8 table(test$A) # A 변수 대상 빈도 수. # table()은 빈도수 # (빈)도수분포표
9 max(test$A)   # 최대값
0 min(test$A)   # 최소값
1 # table에서 도수분포표에 갯수로 나누어주면 확률분포표
2 length(test)  # 5
3
```

```

3rd Qu.:3.000  3rd Qu.:4.000  3rd Qu.:4.000  3rd Qu.:3.00  3rd Qu.:4.000
Max.    :5.000  Max.    :5.000  Max.    :5.000  Max.    :4.00  Max.    :5.000
> table(test$A) # A 변수 대상 빈도 수. # table()은 빈도수
  1   2   3   4   5
30 133 156  80   3
> max(test$A)  # 최대값
[1] 5
> min(test$A)  # 최소값
[1] 1
> length(test) # 5
[1] 5
>

```

---

데이터 분석에서는 ‘열(column)’을 feature(특징)라고 한다. 예) id, name...

---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신경망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통계분석이 중요하다.

---

평균과의 차이를 편차라고 한다.

---

70 75 80

75 75 75

- - - - -

-5 0 +5 = 0 편차

---

산포도 - 분산과 표준 편차

(부호를 없애기 위해) 편차에 절대값, 제곱을 씌우면 표준편차가 나온다. 하지만 제곱을 더 선호한다.

제곱은 더 숫자가 극대화해서 오차가 더 커져서 제거하기가 더 수월하다.

작은 오차는 빼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편차를 제곱한 것을 분산, 그 분산을 나중에 루트를 씌우면 다시 숫자가 작아지기에 이때 이것을 평균을 내면 표준편차라고 함.

```
07 var_sd <- function(x){
08   var <- sum((x-mean(x))^2) / (length(x)-1) # 표본분산
09   sd <- sqrt(var) # root를 씌운 것을 sqrt()
10   cat('표본분산:', var, '\n')
11   cat('표본 표준편차:', sd, '\n')
12 }
13
```

length-1은 추정통계

모집단 안에서 추정을 하는 것을 추정통계.

마지막에 남은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1을 하자는 것이다.

예) 빨 주 노 초 파 남 (보) = 빨 주 노 초 파 남 -1 = 모집단의 추정통계

```
> # 분산과 표준편차를 구하는 함수 정의
> z <- c(7, 5, 12, 9, 15, 6) # x 변량 생성
> var_sd <- function(x){
+   var <- sum((x-mean(x))^2) / (length(x)-1) # 표본분산
+   sd <- sqrt(var)
+   cat('표본분산:', var, '\n')
+   cat('표본 표준편차:', sd, '\n')
+ }
> var_sd(z)
표본분산: 14.8
표본 표준편차: 3.847077
> |
```

---

무조건 NA를 제외시키는 건 좋지 않다. 과소표집할 때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